

기대했던 홈 첫 승 무산... 연변팀 녁파팀과 무승부

—속제로 남은 공격력, 다음 경기서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가 컸던 시즌 홈 개막전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극장골인 가 싶던 순간에 무효골 판정을 받으며 연변팀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4월 18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장에서 진행된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녁파구락부팀(이하 '녁파팀')과 0대 0으로 손을 잡았다. 경기전에 "시즌 첫 홈경기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힌 이기형 감독은 호재점, 단덕지, 서계조, 리세빈으로 수비진을 구축하고 박세호, 최태욱, 김태연, 도망구스, 황진비로 중원을 구성했으며 조반니를 원톱으로 내세운 4-1-4-1 전형을 가동했다. 키 퍼 장갑은 구가호가 착용했다.

까다로운 초반 4연속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개된 홈 개막 경기인 지라 시작전부터 팬들의 응원소리로 경기장이 들끓었다. 뜨거운 열기 속 중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연변팀은 양 측면을 살려 전진 패스를 이어갔고 3분도 안되어 상대 문전에서 황진비의 헤딩골이 시도되는 등 선제 공격을 선보였다. 이에 맞서 녁파팀도 차츰 라인을 울리며 우리 팀 진영으로 파고들었다. 서로의 역습을 노리는 두 팀의 공방으로 중원에서 공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눈치싸움 속 20분이 넘도록 람팅 모두 공격 포인트를 울리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23분경, 왼쪽 측면에서 시작된 프리킥 찬스가 황진비의 헤딩골로 연결되었으나 골대를 빗나가며 질

은 아쉬움을 남겼다. 뒤이어 경기 초반부터 왼쪽 측면에서 시원한 돌파를 풀어주던 리세빈이 또 한번 문전으로 질주하며 김태연—조반니를 통한 연계 플레이로 녁파팀 문전을 휘저어놓았다. 30분경에는 조반니가 상대 박스 언저리에서 먼거리 슈트를 때리는 등 연변팀의 슈팅과 유효 슈팅이 잇달아 나오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듯했지만 골 소식은 여전히 터지지 않았다. 33분경 연변팀은 허문광으로 부상이 의심되는 리세빈을 바꾸며 첫 교체 카드를 썼다. 44분경, 이번에는 녁파팀이 코너킥을 얻었고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공격수 레오날도가 헤더로 우리 팀 골문을 노렸다. 위기의 순간에 이번에도 구가호가

구세주로 나섰고 빛나는 선방으로 골대 옷쪽을 향해 날아온 공을 저낸 덕분에 연변팀은 전반전을 0대 0으로 마무리했다.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한 연변팀은 라인을 올리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돌파로 기회를 엿보았으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55분경, 황진비가 때린 강슛을 상대 키퍼가 쳐내며 연변팀은 이날 경기 첫 코너킥을 쟁취했다. 후반전이 60분을 넘어섰고 교차상태를 타개할 열쇠가 필요한 시점에 연변팀은 두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한 손석봉으로 김태연을 교체했다. 61분경에 나온 연변팀의 두번째 코너킥도 승승하게 끝났다. 대체적으로 람팅의 공 쟁탈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듯 보였으나 아슬아슬한 장면은 크게 없었고 70분이 되도록 두 팀 모두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72분경에는 상호 슈팅을 주고받았으나 두 팀의 키퍼가 각자 선방을 펼쳤다. 75분에 연변팀은 리운호로 최태욱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답답한 경기 흐름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간은 80분을 지나 후반부에 들어섰다. 경기 정규 시간 안에 득점을 내지 못한 두 팀에 후반전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다. 경기 막판에 연변팀의 파상공세가 몰아치던 중 황진비가 슈팅을 터뜨리며 환호했으나 부심이 오프사이드 기발을 들어올리며 무효골로 선언했다. 비디오 판독이 없어 아쉬움이 컸고 이와 함께 경기 종료되며 연변팀은 최종 0대 0으로 녁파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2만 3,000명이 넘는 홈 관중 앞에서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른 연변팀은 4월 25일 역시 홈에서 섬서련합팀과 격돌한다. /김기혜 김파 기자

[관전평]

축구에는 '당연한 승리'가 없다

■ 석봉



제 5라운드 대녕파구락부전에 선발로 나선 연변팀 선수들 / 김파기자

축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순위표의 수자가 경기장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기록과 통계가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지난 18일 오후 펼쳐진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5라운드 연변팀과 녁파팀의 0-0 무승부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리그 상위권의 홈팀과 하위권의 홈팀인 원정팀, 이 것만으로도 모두들 압도적이고 '당연한 승리'를 예상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축구는 '당연함'을 가장 혹독하게 무시하는 스포츠이다. 이날 경기 내용을 보면 오히려 홈팀으로 분류된 녁파팀이 날카로운 찬스가 더 많았고 연변팀은 답답한 경기를 풀어나갔다. 경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연변팀이 우세한 듯했지만 작작 위협적인 기회는 상대가 더 많았다. 구가호의 선방이 빛을 발했으니 말이지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이변'의 서사가 아니다. 통계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리그 순위, 홈 우세, 선수 개인 능력치는 모두 '그날'의 90분 앞에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경기는 그날 뛰는 선수들의 컨디션, 집중력, 그리고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절박함은 강자에게는 독이 되고 약자에게는 약이 된다. '만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은 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는

예상 밖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녁파팀의 끈질긴 수비와 전술적 절제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전략의 결정체였다. 약자의 반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직력과 준비성이 개인 기량의 열세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녁파는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전술로 '당연한 패배'를 '값진 무승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축구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비드와 골리앗'의 전설이 쓰여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강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하고 절대적인 약자에게도 그날만큼은 승리의 신화를 쓸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0-0은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본질, 즉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90분간 펼쳐지는 모든 리본과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들, 그 불확실성의 마법에 우리는 매료되는 것이다. 연변팀에 이 경기는 교훈이자 다음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결과를 순위표에 기록한 채 다음 경기장에서 펼쳐질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기다린다. 축구에는 '당연한 승리'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축구를 끝없이 사랑한다.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공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의 이기형 감독은 "홈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다. 수비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공격에서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기

를 총평했다. 이어 "지난 시즌과 비교해볼 때 상대팀들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더 도전적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앞으로 훈련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 시즌 첫 홈경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파기자

[포토 포커스]

터질 듯했던 함성, 그대로 멎었다!



지난 주말(18일)에 펼쳐진 갑급리그 제 5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연변팀 황진비의 '결승골'이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한순간 들쭉이던 홈 관중석이 짙은 탄색으로 바뀌었다. 다시보기 화면을 보면 패스를 받을 때 황진비는 상대의 수비라인 속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아니었으면 골을 받은 후 앞으로 치고 나갔다. 완벽한 역오프사이드 전술을 통한 극장골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기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VAR)이 없었기에 심판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애매한 순간은 그대로 '심판의 권한'으로 남았다.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골이라 아쉬움은 배가됐다. /글 김기혜기자 /사진 김파기자

[제 6라운드 미리 보기]

'홈 첫 승' 도전 연변팀

원정서 강했던 만큼 이젠 홈에서 증명할 시간

시즌초 '4연속 원정'에서 2승 1무 1패로 7점을 수확했던 연변팀이 홈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주말(18일)에 열린 제 5라운드 대녕파구락부팀 경기에서 연변팀은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지 못한 채 '최하위'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서계조를 중심으로 한 연변팀의 수비진은 녁파의 공격을 차단하며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고 특히 키퍼 구가호의 결정적인 선방은 팀의 패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비 안정성은 여전히 연변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볼 수 있으나 홈 첫 경기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 세밀함이 다소 부족했고 많은 경우 상대의 문전으로 향하는 패스가 정확하지 못해 기회를 무산시켰다. 공격이 여전히 속제로 남았다. 2만 3,000여명이 몰린 홈 관중 앞에서 승리를 '예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은 확실히 유감이다. 그러나 '비판론'을 펼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다. 한번의 승리가 지나치게 압박을 필요로, 한결의 경기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과도하게 낙심할 그를 길게 풀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당장 이번 주말(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 6라운드 경기이다. 연변팀은 이제 4연속 홈경기의 두번째 상대인 섬서련합을 불러들여 진가를 다시 증명할 기회를 맞이한다. 상대팀 섬서련합은 제 2라운드 경기 일정이 추후로 지연된 가운데 지금까지 치른 4라운드 경기 성적이 1승 1무 2패이다. 제 4라운드에서 장춘아태에 1대 2로 패하고 제 5라운드에서는 남통지운과 0대 0으로 손잡으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에 머물러 있는데 지난 4라운드의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4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고 3실점을 기록중이다. 역시 이 팀도 약한 공격력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다음 경기의 핵심은 연변팀의 공격진인 홈 관중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느냐이다. 중원과 전방의 유기적인 공격 작업으로 득점 루트를 뚫는다면 전방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 연변팀에는 '홈 강세'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은가. 평정심을 가지고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가 잘하는 건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강점을 심층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4연속 원정에서 준수한 성적을 냈던 만큼 4연속 홈에서 충분한 승점을 쌓는 것은 연변팀의 올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올 시즌 초반 보여준 '원정 강호'의 면모에 이제 '마귀홈장'의 위용을 더해 홈장 첫 승까지 순항하길 기대한다. /김기혜기자